

담배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기호품이지만 건강에 나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당연히 나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담배에 관한 나의 생각도 나쁘다 혹은 좋다라는 관념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폐를 끼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공공 장소에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는 사람의 권리를 무조건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레스토랑, 버스, 전차등의 공공 장소에서 금연을 강조하기보다는 학교에서 교육이나 TV의 공익을 위해 담배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하고 주변 사람을 배려할수 있는 도덕성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문제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하게 볼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 피는 사람의 주변사람을 위해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흡연구역을 정해주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